개인투자자 수익률 곤두박질… 기관·외인 '10분의 1' 수준

개인 상위종목 평균 수익률 2.22%
기관·외인, 방산·금융株 중심 투자
증권가 "섣부른 추격매수는 피해야"

#대기업 부장인 이모(43)씨에게 '주식' 두 글자는 금기어다. 지난 1~2월 국내 주식에 3000만원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수백만원을 잃어서다. 10개가 넘었던 투자 종목 중 다 정리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건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화오션이다. 이씨는 "'곧 오르겠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새 500만원 넘게 까먹는 중"이라며 "정신건강에 안 좋아서 요즘은 주식 창도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6%대를 기록 중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한풀 꺾였다. 부진한 투자성적 탓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이 커지면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쳤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깨졌던 '개미 필패'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개미 '필패' 이어질까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22%였다.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산 종목의 수익률을 평균값화해 산출했다.

〈투자 주체별 1분기 수익률 비교(2025 1월 1일~3월 27일 기준)**〉**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종목명	등락률	종목명	등락률
삼성SDI	-19.59%	SK하이닉스	19.03%
알테오젠	13.7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3.06%
HD현대일렉트릭	-20.42%	네이버	-0.55%
HD현대미포	-24.96%	포스코 홀딩스	18.54%
삼성중공업	21.86%	카카오	8.9%
현대차	0.24%	한국항공우주	41.17%
한화오션	80.72%	LIG넥스원	12.93%
HD현대중공업	-3.83%	현대모비스	18.18%
한화엔진	14.43%	현대로템	108.05%
유한양행	-1.17%	삼양식품	8.76%
두산	18.63%	레인보우로보틱스	67.79%
에코프로비엠	-1.55%	카페24	54.57%
아모레퍼시픽	-1.72%	삼성바이오로직스	11.59%
LG전자	-1.32%	한화	52.79%
KB금융	-3.26%	DL이앤씨	31.88%
LG씨엔에스	0%	휴젤	18.18%
오름테라퓨틱	0%	한국전력	11.22%
KT&G	-4.76%	산일전기	-18.95%
산일전기	-18.95%	주성엔지니어링	37.35%
GS	-4.71%	HMM	13.53%
계	**2.22%**	**계**	**30.90%**

개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기관(25.33%)과 외국인(30.90%)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했다.

개인 순매수 1위인 삼성전자(-3.4%)를 비롯, 현대모비스(-19.5%)와 카카오(-9.5%), 현대차(-11.8%), LG전자(-9.5%) 등도 수익률이 부진했다. 그나마 SK하이닉스(3.5%)와 네이버(2.2%)가 체면치레했다.

개인 순매수 1위인 삼성SDI(-18.59%)를 비롯, HD현대일렉트릭(-20.42%)와 HD현대미포(-24.96%), 산일전기(-18.95%), KB금융(-3.26%), LG씨엔에스(-1.32%) 등도 수익률이 부진했다. 그나마 한화오션(80.72%)와 삼성중공업(21.86%), 두산(18.63%), 알테오젠(13.72%)가 체면치레했다.

개미들은 산 2차전지 관련주의 약세도 수익률 부진으로 이어졌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인해 올해 1분기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둔화됐기 때문이다.

정진수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2차전지 업종의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추가 악화될 전망"이라며 "전기차 수요 절벽의 정점은 올해 1분기로 보고 있지만, 파급 효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의 재고 조정 영향권은 상반기까지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미 매수종목 중 12개가 '-', 기관·외국인 'A'학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든 개인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았다. 기관과 외국인 사들인 상위 20개 종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은 각각 3개, 2개씩이었고 나머지는 플러스였다.

기관과 외국인은 현대로템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안에 담았는데, 올해 들어 현대로템은 105% 뛰었다. 게다가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93% 오르면서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

외인들은 시가총액 상위권의 대형주와 반도체·방산주를 중심으로 투자에 나섰으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는 코스닥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순매수 범위를 상위 20개 종목까지 넓혀 보면 레인보우로보틱스(68%), 카페24(55%), 주성엔지니어링(37%), 휴젤(18%) 등의 코스닥 기업에 투자했는데 모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기전자·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가 '6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실적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전략이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 KB금융(-3.26%), 신한지주(1.57%), 하나금융지주(8.45%), 메리츠금융지주(18.08%) 등 금융주를 다수 담았으며, 경기 방어 종목과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 필수 산업군에 투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매수 시점·투자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섣부른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한다"며 "수익을 내려면 '공포에 (주식을) 사고 탐욕에 판다'는 격언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당국, '상법 개정안' 갈등 고조… 정재계 확산 양상

이복현 금감원장, 거부권 반대 의견
김병환 금융위장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금융당국 내부 이견이 격화되고 있다. 이르면 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혁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관가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30일 정재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간 입장 차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 원장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급 협의체 '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이 원장이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회의 참석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부 내 기류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이 원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시장은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충분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당국을 넘어 재계와 정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계는 거부권 행사 요구를 공식화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사 충실 의무를) 인정한다"며 신중론을 시사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넥스트레이드 본사 /허정윤 기자

넥스트레이드
796개 종목 거래 가능

오늘부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796개로 확대한다. 대량·바스켓매매도 시작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4개 종목이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 것을 반영해 31일 최종 거래 종목을 796개로 결정했다. 제외된 종목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앱클론, 이오플로우, HLB생명과학이다.

거래종목 확대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저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출범 4주차(24~28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346억원에 달했다. 출범 1~2주차(4~14일) 155억원, 3주차(17~21일) 1351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종목당 평균 거래대금으로 비교해보면 1~2주차 15억5000만원, 3주차 12억2000만원, 4주차 58억2000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31일부터는 대량·바스켓매매도 시작된다. 대량매매는 5000만원 이상, 바스켓매매는 5종목·2억원 이상 주식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NSDS' 도입… 무차입 행위 상시 탐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금감원 Q&A

공매도 재개

거래정보 별도 기록·보관… 조작 차단

31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5년만에 전면 재개됩니다.

그간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 및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자 일문일답을 준비했습니다.

Q. NSDS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통제하나요?

A.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통제를 위해 글로벌 민관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등)으로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잔고 및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며,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법인 잔고와의 비교·대사를 통해 개별 법인 잔고의오류를 적발하고 데이터 환류체계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탐지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입니다.

Q.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가능잔고를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A. 잔고조작 행위는 적발 가능합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증빙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습니다.

Q.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하여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면 NSDS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보관되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여 조작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Q.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한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